

사회

# 전남대 총장 후보 13명 난립

### 내년 5월 선거 앞두고...연말·연시 지지부탁 등 과열 조짐

내년 5월에 치러지는 전남대 총장 선거에 역대 최다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선거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3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조기에 선거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는 행정학과 오재일, 정치외교학과 지병문·윤성석, 병리학교실 박창수, 외과학교실 김영진, 정형외과학교실 윤택림, 신소재공학부 이병택·박충년, 응용화학공학부 문희, 과학교육학부 김현태, 사학과 최영태, 화학과 국성근·최용국 교수(무순) 등 13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교수들은 연말 지지를 호소하는 '예비후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마자들이 많다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싫든 좋든 후보들의 구애와 합

계 각 후보 지지자들과의 접촉요구가 지 포함하면 선거를 얘기하지 않고 지나야 할 일이다. 동아리 모임, 동문회나 학과 모임, 동아리 모임 등 각종 회합이 열리는 곳이면 후보들과 악수를 나누어야 하는 실정이다.

교수들이 가장 불편한 경우는 후보들이 연구실을 직접 찾아오는 경우. 단순히 지지만 호소하면 좋겠지만 후보자들은 반드시 '나를 찍겠느냐'며 재차 확인하기 때문이다. 후보 대부분이 대선배이거나 심지어 은사인 경우마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찍겠느냐'고 걱정말라'고 답한다 한다.

하지만 고지식한 교수들은 얼굴에 탐탁지 않은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후보들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며 출마의 당위성과 자신의 비전을 설명해달라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 교수들은 후보방문

시 얼굴까지 '지지 모드'로 바꾸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일부 후보들은 지지표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삼부론 욕심에 '000교수가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돌만의 약속(?)을 다른 후보 진영에 흘리기도 해 곤욕을 치르는 유권자도 상당수다.

전남대 총장선거는 1차 간접선거에서 3명을 뽑은 뒤, 2차 직접선거에서 단 한번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접선거를 3월에 치른 뒤, 2개월 뒤인 5월에 직접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자칫 혼란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1, 2차 선거의 공백이 너무 길어 탈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교육청 비위 포착했나

### 교과부 20여일 종합감사 후 오늘부터 추가 감사

### 교원채용·전문직 임용 과정 부당사례 파악한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여일 동안의 종합감사를 끝마쳤음에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팀이 교원 채용과 전문직 임용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연장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에서는 진보교육감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예비감사기간 1주일을 포함,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2일 종합감사 강령 후 5일부터 시 교육청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추가 감사기간에는 3~4명의 배례감사관이 인사와 복무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은 교원 채용과 전문직 임용 과정 등에서 부당한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또 일부 학교의 횡령과 병가 후 해외연수 등 부당한 복무행위 등도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감사기간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1~2일 부족할 점을 고려하면 기간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교과부가 최근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여 무더기 지적사항을 내놓은 것과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5분 해질 17시 20분 달돋이 13시 53분 달질 02시 21분

**아침 안개주의**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내륙지방에 안개가 끼겠다.

구분	구름조금	2/9C
광주	구름조금	2/8C
목포	구름조금	3/10C
여수	구름조금	1/10C
나주	구름조금	2/9C
완도	구름조금	-1/10C
구례	구름조금	1/9C
강진	구름조금	0/9C
해남	구름조금	0/9C
장흥	구름조금	2/11C
영광	구름조금	0/8C
진도	구름조금	1/9C
전주	구름조금	-2/7C
군산	구름조금	-2/6C
남원	구름조금	-4/7C
혁신도	구름조금	6/8C

구분	중하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	↑	↑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4/10	5/12	3/7	-1/3	-2/5	-2/7



**"CO2 배출줄이자"** 광주시교통경제단체협의회(회장 조정래)는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 송강장에서 친환경 선진도시 구축을 위한 CO2 배출줄이자 캠페인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지역 교장공모제 '인기없네'

### 대상 12곳 중 절반만 신청...초등은 2곳에 그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장 공모제가 무더기 미달사태로 곁돌고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 경향과 달리 공모제에 대한 교직원들의 기피경향이 강해 학교에서 신청 자체를 꺼린 때문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교장 공모 접수결과 대상 학교 12곳 가운데 6곳만이 신청했다. 중·고교는 계획한 4곳을 채웠으나 초등학교는 8곳 중 2곳에 그쳤다.

시 교육청은 나머지 6곳은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초등은 퇴직자가 많아 순환속도가

빠른 점도 공모제에 무관심한 이유다. 곧 발령을 받는데 굳이 고생하며 공모제에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선 교사들의 경우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모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제는 학교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경영의 최적인자를 선발하고 정실, 특히 인사 등을 막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 않아 교과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다. 광주는 현재 초등학교 28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3곳 등 46곳이 교장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리영희 선생 1주기 추모식** / **'4대비위' 교원 승진 제한**

**국립5·18민주묘지서** / **교과부, 최대 2년까지**

5·18기념재단은 언론인이자 학자인 리영희 선생 1주기 추모식을 5일 오후 1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유족 및 지인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81세를 일기로 지난해 별세한 '실천하는 지식'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는 국립 5·18민주묘지 7묘역에 안장됐다.

김품·황응수수, 성복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합뉴스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 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2011년 신제품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수요공급사용전력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